

동사-불변화사의 결합에 관한 연구

박 정 길 · 김 영 철

A Study on Verb-Particle Combinations

Park Jeong-Gil · Kim Young-chul

.....〈목 차〉.....	
I. 서 론	3. 동사-불변화사 결합의 하위분류
II. 본 론	4. Phrasal verb와 Prepositional verb의 차이
1. 동사-불변화사 결합의 성행 이유	III. 결 론
2. 동사-불변화사 결합의 통사적 의미적 증거	Bibliography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provide some basic knowledge for further research about verb-particle combinations (VPC). The focus of this thesis was put on the terms and coverage of VPC. For this purpose the thesis comprises four topics as follows:

1. some reasons for the success of VPC
2. syntactic and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VPC and non-VPC
3. subcategories of VPC and the classificatory criteria
4. various differences between phrasal verbs and prepositional verbs

The authors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f many remaining issues in the field such as factors affecting particle's position, the prosody of phrasal verbs, semantic features of particles, and the problem of idiomaticity. And the authors make sure that the above-mentioned research would be very convincing when it is conducted with the data based on every colloquial exchange of English, especially in casual or informal contexts.

I. 서 론

Baugh & Cable (1978. p.337)은 현대 영어 어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catch on, put off, turn

over, step up (supplies), take up (the story) 등의 관용적 표현(idiomatc expressions)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은 대개 Anglo-Saxon어 결합으로서 그 Romance어 상당어인 comprehend, postpone, surrender, increase, continue 등의 단일 동사 대신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은 그 용법이 실로 다양해졌는데, 이것은 특히 일상적인 구어체 대화에서, 그리고 비격식적 언어 상황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영어 어휘상의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듯 소위 verb-particle combination에 관한 많은 저서와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다. 즉, A. G. Kennedy의 *The Modern English Verb-Adverb Combination* 이 1920년 출판된 이래 Bolinger의 *The Phrasal Verb in English* (1971), Fraser의 *The Verb-Particle Combination in English* (1976), S. J. Lindner의 *A Lexico-Semantic Analysis of English Verb Particle Constructions with OUT and UP* (1983)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발표된 저서와 연구 논문의 수효는 엄청나다.¹⁾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용적 표현에 관한 용례 및 사전도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F. T. Wood의 *English Verbal Idioms* (1964), C. Mortimer의 *Phrasal Verbs in Conversation* (1972),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Volume 1: Verbs with Prepositions & Particles*(1975),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3) 등이 이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verb-particle combination (이하 VPC로 줄여 쓰겠다.)은 바로 앞 문단에서도 언뜻 알 수 있듯이 연구자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용어 또한 다양하다.²⁾ 그래서 필자는 우선 VPC라고 할때의 particle의 적용 범위를 Jespersen (1965. p. 87)의 주장³⁾을 좇아 adverbial particle은 물론 전치사도 포함시켰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VPC는 Fraser(1976)가 쓴 verb-particle combination이나 Lindner (1983)의 verb-particle construction과는 그 분포상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VPC라고 일컬어지는 범주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준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번째 목적이다.

그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또 하나의 용어는 phrasal verb라는 것이다. Phrasal verb (이하 Vph로 줄여 쓰겠다.)는 물론 구(phrase)를 이루는 동사 전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3)에서는 “Phrasal verbs are idiomatic combinations of a verb and adverb, or a verb and preposition (or verb with both adverb and preposition)”이라고 하나 필자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 필자는 F. R. Palmer (1965)의 분류에 따라 Vph를 VPC의 하위 범주 중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두번째 목적은 VPC 내에서의 하위 범주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분류의 준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VPC의 하위 범주 중 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Vph와 prepositional verb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Lindner(1983)는 이에 관하여 여섯 가지 준거를 들고 있는데, 필자는 Lindner의 준거에 의거 Vph와 prepositional verb의 차이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Bolinger (1971)와 Fraser (1976)의 저술도 참고로 하였다.

1) Bolinger (1971)의 pp. xvii-xviii와 Lindner (1983)의 References를 참고할 것.

2) verb-adverb combinations, multi-word verbs, two-word verbs, merged verbs, separable compounds, compound verbs, verb-adverbial composites, verb-particle constructions, discontinuous verbs 등 다양하다.

3) Jespersen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별개의 품사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간의 이질성 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여 이 넷을 particle이라 부를 것을 제창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앞서 필자는 VPC, 그 중에서도 특히 Vph의 쓰임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Vph가 단지 로만스어 상당어 대신으로만 쓰이는 형식상의 이유를 넘어 더 절실한 실용적인 이유가 있음을 전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언어 생활에 있어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II. 본 론

1. 동사-불변화사 결합의 성행 이유

고대 영어에 있어서 동사와 부사의 결합은 단지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이며 오늘날과는 달리 부사가 동사 앞에 와서 understand, outrun, overpower 처럼 쓰였다. 중세 영어 시기에는 노르만 정복의 결과로 많은 불어 동사가 유입되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동사-부사 결합은 15세기까지는 담보 상태였거나 천천히 발전해 왔다. 15세기에 이르러서는 blow out와 extinguish, come in과 enter, get around와 circumvent 등의 짝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많은 동사가 의미상 “없어도 좋을”(redundant) particle과 더불어 perforate through, extend out, refer back, proceed forth 등으로 사용됨은 흔한 일인데, 이에 대해 Bolinger (1971, p. xii)는 “With a little pressure the needle finally perforated through.”에서 through가 함께 쓰이지 않으면 오늘날은 불안울 느낄 정도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처럼 동사-불변화사의 결합이 성행하게 된 이유로 Baugh & Cable (1978, pp. 337-338)은 초기 영어 시기에 영문법에서 발생한 변화, 즉, 종합적인 언어를 분석적인 언어로 변화시킨 발전과 유사한 발전을 현대 영어 어휘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Kennedy (1920)를 인용,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이고 역사적인 설명과는 달리 Bolinger (1971, pp. xii-xiv)는 보다 구체적이고 통시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셋으로 들고 있다.

첫째, VPC의 두 결합 요소인 동사와 불변화사가 사용자에게 친숙할 뿐만 아니라 다루기도 쉽다는 점이다. VPC의 구성 요소인 동사의 속성에 관하여 Fraser (1976, p. 13)는 어떤 결정적인 통사적 속성이나 의미적 속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동사의 음운론적 형태가 불변화사와의 결합 여부를 상당한 정도로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그는 불변화사와 공기(co-occur)하는 많은 동사가 단음절(monosyllable)이며, 나머지는 주로 첫음절에 강세가 오는 이음절 단어(initially stressed bisyllabic word)임을 밝혔다. 결합에 사용되는 불변화사는 극히 제한된 수효의 부사 또는 전치사로서 그 사용 빈도가 대단히 높은 품사(word class)이다. 더구나 불변화사는 어근(root)이나 접사(affix)와는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단어이므로 사용자에게 더욱 친숙하고 사용이 용이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Kennedy (1920, p. 35)는 back, bring, come, get, turn, work 등 20개의 동사가 여러 가지 불변화사와 더불어 155가지의 결합 관계를 이루면서 600개 이상의 뚜렷한 의미를 지니고 활용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밝혔다.

둘째, VPC는 비유적 의미 사용의 산실인 점이다. 현대 이전에 발견되는 VPC는 그 의미가 climb

up, fall down 등에서 처럼 동사와 불변화사가 문자 그대로의 뜻이었으며, 동사에 의해 표현된 개념을 불변화사가 단지 강화하는 정도의 용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이러한 결합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이 많은 비유적이고 속어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VPC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나 설득력을 전해주며, 그 결합이 가져다 주는 생동감과 융통성은 그 사용이 성행하게 된 큰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셋째, 줄 부차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VPC는 영어 어형성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즉, VPC는 명사+명사의 결합 다음으로는 영어 명사 형성의 가장 주요한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VPC가 명사화되는 경우, 보통의 동사에서 명사로 전성(conversion)되는 경우 즉, *import*→*import*, *combine*→*combine*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세의 변화만 주면 된다. 그래서 *stand off*에서 *standoff* (격리, 고립), *run away*에서 *runaway*(도망(자)), *make up*에서 *makeup* 등으로 쉽게 명사화된다. Fraser (1976, p. 27)는 VPC의 명사화에 관하여 첫째 어떤 VPC의 명사화 여부, 둘째, 명사화 되는 경우의 해석 등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둘 다 결정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수효의 VPC만이 명사화되며, 그 대부분의 의미는 *Knockout*, *pay-off*에서처럼 활동(activity)을 나타내지만 *showoff*, *dropout* 처럼 물리적 객체(physical object)를 나타내는 것도 일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형태상으로는 동사와 불변화사가 그대로 결합됨이 보통이지만, *bringing-up*, *dressing-down*, *chewing-out* 처럼 동사의 -ing 꼴이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dugout*, *left-over* 처럼 동사의 과거분사 꼴이 쓰이는 것도 있다. 어쨌건 VPC에서 명사화된 것 중 *closeup*, *line-up*, *crackdown*, *handout*, *pitchout*, *changeover* 등은 우리 한국인에게도 대단히 널리 알려지고 또 사용되는 어휘입에 틀림이 없다.

요컨대 VPC의 성행 이유로는 VPC를 구성하는 두 요소 즉 동사와 불변화사에 대한 사용자의 친숙함과 그 사용의 용이함, 그리고 의미상 비유적, 은유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VPC 그 자체의 장점 이외에 명사로 쉬 전성될 수 있어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언어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부차적인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2. 동사-불변화사 결합의 통사적 의미적 준거

다음을 보자.

- (1) a. John called up the man
- b. John called on the man
- c. John put up with the man

위의 세 문장에서 *call up*, *call on*, *put up with*는 *the man*을 보어(complement)로 취하는 하나의 언어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Quirk et al (1972, p. 811)은 이들을 보통의 single-word verb에 견주어 multi-word verb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multi-word verb와 외형상 유사한 연결체인 다음 문장을 보자.

- (2) a. John called from the office

- b. John called after lunch
- c. John called from under the table

우리는 (2)의 세 문장이 동사+전치사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Quirk et al(p.812)은 (1)과 (2)의 차이를 cohes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1)의 세 문장에서는 부사적 또는 전치사적 불변화사(up, on, up with)가 동사와 더불어 의미적, 통사적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2)의 문장에서는 전치사적 불변화사(from, after, from under)가 동사보다는 전치사구의 head인 명사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1)과 같은 VPC를 (2)의 non-VPC와 구분짓는 준거에 대하여 의미상의 측면과 통사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의미상으로 보면 VPC는 관용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Bolinger의 표현을 빌면 VPC는 “a lexical unit that has a set of meaning which is not the sum of the meanings of its parts.” (1972, p.xii)인 것이다. 따라서 VPC의 가장 확실한 준거는 그것이 단일 동사로 대체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의 call up (=summon), call on (visit), put up with (=tolerate)등은 (2)의 call from, call after, call from under 등과는 달리 VPC의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VPC의 관용성의 정도에 관한 한 어디까지가 VPC에 속하며 어디에서 부터 non-VPC에 속하는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Quirk et al (1971)은 다음의 세 범주 모두를 VPC의 하위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a) 동사와 불변화사가 각각의 어휘적 의미를 보유하며(e.g., look over (=inspect), set up (=organize), etc.) 동사와 불변화사의 이러한 독립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조적 대체도 가능한 것 같다.

bring } { in	turn } { on
take } { out	swich } { off

(b) 동사만 그 기본적 어휘 의미를 지니며, 불변화사는 단지 ‘강화적기능’(infensifying function)만 한다. (e.g., find out (=discover), sweep (up) the crumbs, spread (out) the rug, etc.)

(c) 동사와 불변화사가 새로운 관용적 결합으로 합쳐져 그 의미가 각각의 의미에서 연역되지 않는다. (e.g., bring up (=educate), come by (=obtain), come in for (=receive), etc.) 따라서 (a)에서와는 달리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불변화사의 대체 가능성은 없다. (e.g., bring up/*down, put off/*on, give in/*out, etc)

VPC의 하위범주가 위에서와 같이 셋으로 구분된다 하여도 실제로 어떤 VPC가 그 중 어느 범주에 속하지는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똑같은 VPC이지만 문맥에 따라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g., John went into { the house (문자적 의미)
 { the problem (비유적 의미)

다음으로 통사적 측면에서 VPC와 non-VPC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첫째 수

동변형 가능성 여부와 둘째 의문변형에 있어서 대명사적 의문변형과 부사적 의문변형 중 어느 것을 허용하는지의 준거가 있다. 우선 (1)과 (2)를 수동변형 시켜 보자.

(1)' a. ~c. The man was $\left\{ \begin{array}{l} \text{called up} \\ \text{called on} \\ \text{put up with} \end{array} \right.$

(2)' a. ?The office was called from
b. *Lunch was called after
c. *The table was called from under

(1)의 VPC는 (1)'에서처럼 수동변형이 가능하나 (2)의 non-VPC는 (2)'에서처럼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의 VPC는 단일 타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2a)'과 같은 어색한 문장도 적절한 상황이 부여되면 용인 가능한 문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3) This office has been called from so many times that it was natural to assume that it was the source of the latest call

둘째, 의문변형에 있어서 VPC는 그 목적어를 who(m) 또는 what으로 하는 대명사적 의문변형은 허용하지만 non-VPC에서 처럼 부사적 기능을 갖는 전치사구 전부를 where, when, how등으로 유도하는 부사적 의문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 (4)와 (5)를 비교해 보자.

(4) They called on the man
⇒ Who(m) did they call on?
⇒ *Where did they call?
(5) They called after lunch.
⇒ *What did they call after?
⇒ When did they call?

(4)와 (5)의 의문변형의 차이에서 (4)는 VPC, (5)는 non-VPC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문장의 수동변형 가능성 여부와 대명사적 의문변형이나 부사적 의문변형이냐의 차이가 VPC와 non-VPC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준거라고는 할 수 없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6) John agreed with Mary

(6)의 경우 상기 두 의문변형 중 대명사화 의문변형 형태만 취하므로 VPC의 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수동변형도 마땅히 허용해야 하겠지만 그 수동문의 용인성은 의심스럽다. 그러나 수동문의 동사구 (verb phrase)가 확대되면 (7d)에서 처럼 용인 가능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

(7) a. Who did John agree with?
b. *When (or When, or How) did John agree?
c. ?Mary was agreed with by John
d. Mary is a person who likes to be agreed with(by everybody)

또한 다음 (8)에서와 같이 상기 두 의문변형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8) The car stopped beside a wall
 ⇒What did the car stop beside?
 ⇒Where did the car stop?

(6)~(8)의 예는 VPC와 non-VPC가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 이외에 어느 범주에도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9)의 문장을 VPC로도 non-VPC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 (9) He looked at the girl

(9)를 non-VPC로 분석함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동사 뒤의 전치사구가 부사적 기능 단위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관계대명사화의 경우 전치사의 전치(preposing)가 가능하며, 또 동사와 전치사구 사이에 다른 부사를 삽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봐서 (9)는 동사+전치사구로 분석할 수 있다.

- (10) a. The girl { at whom he looked/(who(m)) he looked at
 { to whom he came/(who(m)) he came to
 b. He { looked nervously at the girl
 { stood nervously near the girl
 { *watched nervously the girl

또 (9)를 VPC로 분석함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수동변형으로 알 수 있다.

- (11) The girl was { looked at
 { watched
 { *stood near

(10)과 (11)에서 우리는 (9)가 VPC로도 non-VPC로도 분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문의 경우 VPC인지 non-VPC 인지를 따지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VPC는 동사와 불변화사(들)의 결합으로서 의미상 그리고 통사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준거에 의해 대체적으로 하나의 언어적 단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동사-불변화사 결합의 하위분류

앞 절에서 VPC는 동사와 불변화사(들)의 결합으로서 의미상으로나 통사상으로 대체로 하나의 언어적 단위를 이루는 것임을 알았다. 이것은 F. R. Palmer (1968, p. 184)가 VPC를 분류하면서 적용한 두 가지 준거, 즉 불변화사의 문법적 자격이 전치사나 부사나 준거와 그 결합이 의미상 관용적이냐 비관용적이냐의 준거와 유사하다. 그러나 VPC의 관용성이란 확연히 이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의한 등급성을 띠는 것이므로 VPC의 분류 준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lmer의 VPC 분류는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Palmer는 VPC를 동사와 불변화(들)의 결합으로서 관용적인 것에 국한하며 이것을 다음의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 (12) a. phrasal verbs without object
- b. phrasal verbs with object
- c. prepositional verbs
- d. phrasal prepositional verbs

Quirk et al (1973, p. 347)은 (12a)와 (12b)를 각각 intransitive verbs와 transitive verbs로 부르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거의 마찬가지이다. 우선 Vph는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으로서 불변화사가 부사적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예문을 보자.

- (13) a. *Drink up* quickly
- b. He *turned up* unexpectedly
- c. *Find out* whether they are coming
- d. They *turned on* the light

(13a~d)는 Vph인데 (13a~b)는 자동사적 Vph이며 (13c~d)는 타동사적 Vph이다. 그리고 (13a)나 (13c)처럼 불변화사는 동사의 의미를 강화해주는 정도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13b)나 (13d)처럼 완전히 관용적이 된 Vph도 있다.

Palmer (1968, p. 185)는 VPC에 관하여 그 의미상의 단일성(semantic unity)과 연어상의 제약(collocational restriction)을 제외하고는 어떤 VPC가 Vph인지 아니면 단순히 동사+부사의 결합인지를 결정지어주는 준거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다음을 보자.

- (14) a. He *got across*
- b. He *tossed the cat out*
- c. He *hung about*

(14a~c)는 의미상 대충 (15a~c)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 (15) a. He got across the river
- b. He tossed the cat out of the house
- c. He hung about the place

Palmer는 (14a~c)의 across, out, about은 부사의 기능을 하지만 (15a~c)에서는 모두 전치사의 기능을 가지므로 이런 경우의 Vph 여부는 그 관용성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14a~b)는 그 비관용성에 의해 Vph가 아니며, (14c)는 그 관용성에 의해 Vph라고 결론짓는다. 한편 Quirk et al (1973)은 (14a~b)의 across, out를 전치사적 부사라 부르고 동사와 이러한 전치사적 부사의 결합 역시 Vph의 아류로 다루고 있다.

어떤 Vph는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사용되는데 (16a~b)처럼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17a~b)처럼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16) a. The house *blew up* (=폭발하다)
- b. They *blew up* the house (=폭파시키다)

- (17) a. When will they *give in*? (=surrender)

- b. They *gave in* their resignation (= submit)

또한 앞절에서 언급했듯이 일상적 문자적 의미로는 물론 관용적 비유적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결국 (18a~b)에서 처럼 전후 문맥에 따라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 (18) a. *Hold up* your right hand and repeat these words after me (= raise)
 b. The criminals *help up* the train and stole all the passengers' money (= stop by force)

지금까지 대충 살펴본 Vph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다음 (19)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9) They *turned on* the light
 ⇒ They *turned* the light *on*
 ⇒*They turned on it
 ⇒ They *turned* it *on*

즉, Vph는 어순에 있어 목적어를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에 끼어넣을 수 있다는 것과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그것은 반드시 동사와 불변화사의 사이에 와야한다는 것이다.

Vph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 Vph와 Vprep의 차이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Vprep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선 Vprep는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으로서 불변화사가 전치사적 기능을 갖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다음 예문을 보자.

- (20) a. He *looked after* his old father
 b. I'm *looking for* my glasses
 c. I didn't *take to* him (= begin to like)

(20a~c)는 분명한 Vprep에 속하는 것인데 (20a~b)에는 수동변형이 가능하지만 (20c)에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앞절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수동변형이 VPC의 통사적 준거로서 절대적이 되지 못하는 사실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21a~b)에서처럼 수동변형은 가능하지만 Vprep라는 단일한 의미단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면 (22a~b)에서처럼 문장의 modal verb에 의해 Vprep의 수동변형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 (21) a. She *slept in* the bed
 ⇒The bed was *slept in*
 b. They *sat on* the chair
 ⇒The chair's been *sat on*

- (22) a. Visitors didn't *walk over* the lawn
 ⇒?The lawn wasn't *walked over* (by visitors)
 b. Visitors can't *walk over* the lawn
 ⇒The lawn can't be *walked over* (by visitors)

Vprep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우선 Vph의 특성인 (19)에 대비하여 그 주요한 특성을 들자면 (23)과 같다.

- (23) They *called on* the man (= visit)
 ⇒*They called the man on
 ⇒ They *called on* him
 ⇒*They called him on

즉, Vprep는 어순에 있어 Vph라는 달리 목적어를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에 어떤 경우에도 끼어넣을 수 없다는 점이다.

끝으로 phrasal-prepositional verb (Vph-prep)를 살펴보자. Vph-prep는 동사에 두개의 불변화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타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결국 Vph와 Vprep 둘이 합쳐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Vph와 Vprep의 특성을 모두 지닌 것인데 한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첫번째 불변화사는 항상 부사적 기능을 두번째 불변화사는 항상 전치사적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다. (24)는 Vph-prep인데 앞절에서 논의하였듯이 대명사적 의문변형과 수동변형을 허용한다.

- (24) He can't *put up with* bad temper
 ⇒What can't he *put up with*?
 ⇒Bad temper can't be *put up with* for long

그리고 부사를 삽입하는 경우 Vph-prep와 목적어 사이가 아니라 전치사 앞, 즉 두 불변화사의 사이에 삽입됨을 (25a~b)에서 알 수 있다.

- (25) a. *He puts up with *willingly* that secret of his
 He puts up *willingly* with that secret of his
 b. *We look forward to *eagerly* your next party
 We look forward *eagerly* to your next party

Vph-prep 역시 그 관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으며 이 때 수동변형은 물론 관용적 용법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76) John put up with Mary
 { ('stay with') ⇒*Mary was put up with (by John)
 { ('tolerate') ⇒ Mary was put up with (by John)

지금까지 VPC의 하위분류에 대하여 Palmer의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러번 지적되었듯이 VPC의 하위분류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VPC와 non-VPC의 구분에 있어서도 그랬던 것처럼 관용성이라는 준거였다. Palmer처럼 관용성의 준거에 민감하면 Vph나 Vprep 등의 용어 사용이 타당하겠으나 Quirk et al 처럼 관용성에 대해 관대하면 Vph 또는 Vprep란 용어의 정의내림이 곤란해지고 따라서 그러한 용어의 사용 또한 타당성을 많이 잃게 된다. VPC의 관용성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 Lindner인데 다음 예문을 통해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 (27) a. Th kite *floated up*
 b. John fell ill and *threw up*
 c. John *tossed* the cat *out* before going to bed
 d. John *ran up* a bill

Lindner는 (27a~d)의 밑줄 친 부분의 복합동사(compound verb)를 Verb Particle Construction (VPC)이라 부르며, 동사적 요소(e.g. float, throw, etc.)와 불변화사가 결합하여 운율상, 통사상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내린다. 그래서 그의 VPC에는 (27a~b)처럼 자동사적인 것, (27c~d)처럼 타동사적인 것이 포함됨은 물론 (27a,c)처럼 문자적 의미인 것도 (27b,d)의 관용적 의미인 것과 더불어 모두 VPC에 포함된다. 이런 관점은 특히 관용성과 관련하여 Vprep에 야기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 같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8) a. He *slept on* the coach
 b. You may *rely on* me
 c. Fred *laughed at* Harold
 d. John *ran up* a hill

Lindner는 (28a~d)의 이탤릭 체 부분을 모두 Verb-Prepositional Phrase construction (VPP)라고 부르는데, 이에는 (28b,c)의 관용적 의미의 결합은 물론 (28a)처럼 행동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28d)처럼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 등의 문자적 의미의 결합도 포함됨으로써 관용성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며, Palmer처럼 (28a)를 Vprep에서 제외시키는 예외조항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Lindner의 이러한 분류는 앞 절 VPC와 non-VPC의 구분에서 제시되었던 준거 특히 부사적 의문변형과 대명사적 의문변형의 준거에 의하면 그의 VPP 모두가 일치된 통사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의 분류 역시 문젯점이 없지는 않다고 하겠다. 다음 (29a,b)에서 (28a,c)의 두 의문변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자.

- (29) a. He slept on the coach
 ⇒*What did he sleep on?
 ⇒ Where did he sleep?
 b. Fred laughed at Harold
 ⇒ Whom did Fred laugh at?
 ⇒*Where/*When/*How did Fred laugh?

4. Phrasal Verb와 Prepositional verb의 차이

앞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미루어 둔 Vph와 Vprep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논의의 편의상 Lindner (1983, p.4)가 Vph와 Vprep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면 제시한 여섯가지 준거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Lindner가 제시한 준거는 다음의 여섯가지이다.

- 가. Position of the particle relative to the direct object
 나. Stress
 다. Insertion of adverbial phrase

Lindner는 (27a~d)의 밑줄 친 부분의 복합동사(compound verb)를 Verb Particle Construction (VPC)이라 부르며, 동사적 요소(e.g. float, throw, etc.)와 불변화사가 결합하여 운율상, 통사상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내린다. 그래서 그의 VPC에는 (27a~b)처럼 자동사적인 것, (27c~d)처럼 타동사적인 것이 포함됨은 물론 (27a,c)처럼 문자적 의미인 것도 (27b,d)의 관용적 의미인 것과 더불어 모두 VPC에 포함된다. 이런 관점은 특히 관용성과 관련하여 Vprep에 야기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 같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8) a. He slept on the coach
 b. You may rely on me
 c. Fred laughed at Harold
 d. John ran up a hill

Lindner는 (28a~d)의 이탤릭 체 부분을 모두 Verb-Prepositional Phrase construction (VPP)라고 부르는데, 이에는 (28b,c)의 관용적 의미의 결합은 물론 (28a)처럼 행동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28d)처럼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 등의 문자적 의미의 결합도 포함됨으로써 관용성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며, Palmer처럼 (28a)를 Vprep에서 제외시키는 예외조항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Lindner의 이러한 분류는 앞 절 VPC와 non-VPC의 구분에서 제시되었던 준거 특히 부사적 의문변형과 대명사적 의문변형의 준거에 의하면 그의 VPP 모두가 일치된 통사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의 분류 역시 문젯점이 없지는 않다고 하겠다. 다음 (29a,b)에서 (28a,c)의 두 의문변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자.

- (29) a. He slept on the coach
 ⇒*What did he sleep on?
 ⇒ Where did he sleep?
 b. Fred laughed at Harold
 ⇒ Whom did Fred laugh at?
 ⇒*Where/*When/*How did Fred laugh?

4. Phrasal Verb와 Prepositional verb의 차이

앞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미루어 둔 Vph와 Vprep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논의의 편의상 Lindner (1983, p.4)가 Vph와 Vprep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면 제시한 여섯가지 준거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Lindner가 제시한 준거는 다음의 여섯가지이다.

- 가. Position of the particle relative to the direct object
- 나. Stress
- 다. Insertion of adverbial phrase
- 라. Action nominalization
- 마. Preposed construction
- 바. Conjunction and Gapping

이제 이들 준거를 하나씩 살펴보자.

4.1. *Position of the particle relative to the direct object*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동사적 Vph와 Vprep를 구별짓는 가장 뚜렷한 준거는 불변화사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다. 즉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에서 불변화사가 명사 목적어의 앞뒤 어디에나 올 수 있으면 그 결합은 Vph이고 항상 앞에만 와야 하는 경우는 Vprep이다. 따라서 다음 (30a)는 Vph이며 (30b)는 Vprep이다.

- (30) a. He ran up a bill
 ⇒He ran a bill up
 b. He ran up a hill
 ⇒*He ran a hill up

(30a~b)에서 그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뀌면 (30a)는 반드시 불변화사 이동변형을 수반하며 따라서 Vph와 Vprep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 (31) a. The bill? John ran it up
 b. The hill? John ran up it

(30~31)에서의 어순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향에 불과한데 다음 (3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명사가 대조적 강세를 받는 경우에는 불변화사가 대명사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 (32) a. I didn't say to call up HER
 b. Figure out THESE, not THOSE

그러나 대명사에 대조적 강세가 없는 경우라도 동사—불변화사—대명사의 어순은 다음 (33)에서처럼 적지않게 볼 수 있다.

- (33) a. Bring along him and her
 b. The moldy crackers? I threw out those yesterday
 c. Whoever else gives up his seat, I shall not give up mine
 d. I want you to take down this

여기에서 Vph의 어순과 관련된 좀 더 전반적인 원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즉 문의 끝위치에는 명사든 불변화사든 대개 더 길거나, 더 복잡하거나 더 큰 강세를 받는 요소가 온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34a)처럼 명사 목적어가 길거나, (34b~c)처럼 목적어가 짧이거나, (34d)처럼 단 동사와 병치된 경우이거나 또는 대조적 강세를 받는 경우에는 그 목적어가 문의 끝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명사 목적어라 할지라도 짧거나 약강세가 오면 중간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34) a. He *picked up* a wallet with six pound in it
 b. ?*I *called* the man who left *up*
 c. ?*They *found* who he was *out*

d. He saw and *followed up* his advantage

그리고 (35a~b)처럼 불변화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끝위치를 차지한다.

- (35) a. He let the dogs in and out
 b. He recited the poem over and over

Bolinger (1971, p. 51)는 불변화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상기 여러가지 요인을 “news value”라는 의미적 요인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The principle governing the place of the objects……is neither stress, nor length nor rhythm, but something quite different: the news value which the idea denoted by the object has in the sentence. Objects denoting ideas that have news value, no matter whether they are nouns or pronouns, long or short, have end-position; those that have no such value come between verb and adverb.”

위의 일반화는 대조적으로 강세를 받는 명사와 불변화사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구정보요 강세가 없는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에 대한 설명도 해준다. 그러나 대명사라 할지라도 신정보를 가질 수 있으므로 대명사 역시 끝위치에 올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 일반화의 한 증거가 되는 것은 특수한 정보가 거의 없는 명사 (e. g. things, both, nothing, matter, business, stuff)는 가운데 위치에 오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다.

- (36) a. Let's talk things over
 b. He took the matter up with his boss

결국 Vph에 있어서 그 목적어와 관련한 불변화사의 위치는 Bolinger의 말대로 의미상 초점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4.2. Stress

강세 역시 Vph와 Vprep를 구별하는 준거로서 중요하다. 즉 Vph의 불변화사는 강세를 받지만 Vprep의 불변화사는 강세를 받지 않는다. 이 차이는 능동 수동의 경우를 막론하고 통용되며 특히 불변화사가 절의 끝에 오는 경우에는 더 현저하다.

- (37) a. They *called up* the man
 b. They *called on* the man
 c. The button was *sêwed on*
 d. The button was *sêwed on*
 e. The bills I *rân up*
 f. The hills I *rân up*

그러나 Vph의 불변화사가 강세를 받는다지만 강세를 받는 동사와 명사 사이에서는 문 전체의 리듬에 의해 약강세를 가질 수 있다.

- (38) a. He rân ûp a bill
b. He rân ùp a bill
c. She rân ôff the pamphlets
d. She rân ôff the pâmphlets

한편 Vprep의 전치사도 어떤 것은 강세를 받는데 Bolinger (1971, p. 43)는 전치사의 [길이]가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39) a. Is that the wall it was leâned agâinst?
b. The trouble is that his reports were never carefully gône ôver

4.3. Insertion of adverbial phrase

Vprep의 불변회사인 전치사는 명사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므로 동사와 불변회사 사이에 여러 가지 양태부사가 삽입될 수 있으나 Vph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 (40) a. *They called early up the man
b. They called early on the man
c. *Harry looked furtively over the client
d. Harry looked furtively over the fence

한편 Vph의 불변회사는 동사와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므로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는 단 요소를 삽입하지 못하나 Vph의 불변회사와 그 뒤의 명사 사이에는 짧은 삽입구를 끼어넣을 수 있다.

- (41) a. *He talked about, a grin on his face, the situation
b. The fisherman reeled in, a grin on his face, the line from which a shark dangled

그러나 (41a)도 목적어가 길거나 복잡하면 정문이 될 수 있고 (41b)의 문법성도 그 목적어가 heavy NP object임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41a~b)의 타당성은 다소 회박하다고 볼 수 있다.

4.4. Action Nominalization

Vph의 불변회사와 그 뒤의 명사 사이에는 action nominalization의 표지인 of에 의해 명사화되나 Vprep의 전치사와 그 목적어 사이에는 of에 의해 명사화되지 않는다.

- (42) a. His looking up of the information pleased the teacher
b. *Her looking at of the table surprised the storekeeper

한편 action nominal test는 Vph와 Vph가 아닌 동사+부사적 불변회사의 결합과를 구별짓는 데에도 유용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3) a. His throwing up of his dinner was stupid
b. *His throwing of his dinner up was stupid
c. His throwing up of the ball was stupid

d. His throwing of the ball up (rather than down) was stupid

즉, throw up 처럼 극히 관용적 용법으로 굳어진 Vph의 경우에는 동사와 불변화사를 분리시킬 수 없으므로 (43a)만 가능하고 (43b)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적이 아닌 중간 단계의 여러 결합은 동사가 대체로 그 문자적 의미를 지니며 불변화사는 그리 뚜렷하지 않으므로 (43c)도 (43d)도 다 가능하다.

4.5. Preposed Construction

Vph의 불변화사와 그 뒤의 명사와는 구성성분을 이루지 않으나 Vprep의 전치사와 그 뒤의 명사와는 구성성분을 이루므로 다음 (44)와 같은 전치된 구문에서 Vph와 Vprep의 차이를 볼 수 있다.

- (44) a. *In the line the man reeled as if drunk
 b. In the street the man reeled as if drunk

마찬가지로 Vprep의 전치사는 관대대명사나 의문사 앞에 올 수 있으나 Vph의 불변화사는 불가능하다.

- (45) a. the man on whom they called
 b. *the man up whom they called
 c. What did he climb up?
 d. Up what did he climb?
 e. What did he break up?
 f. *Up what did he break?

그러나 (45d)의 용인성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이 있으며, 다음 (46)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46)?*After whom did she look?

4.6. Conjunction and Gapping

Vph의 불변화사와 그 뒤의 명사는 함께 연결될 수 없으나 Vprep의 전치사와 그 뒤의 명사는 함께 구성요소를 이루므로 연결될 수 있다.

- (47) a. *The fisherman reeled in the lines and in the fishnets
 b. They talked about the situation and about the issues of the day

이 역시(46)처럼 동사와 전치사의 결속정도에 따라 Vprep라 할지라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48) *She looked after her father and for her mother

Fraser (1976, p.2)는 Vprep의 전치사와 그 뒤의 명사는 생략문에서 하나의 통사 단위로 행세하나 Vph의 불변화사와 그 뒤의 명사는 그러하지 못함을 다음의 예로써 설명하고 있다.

- (49) a. He sped up the street and she up the alleyway
 b. *He sped up the process, and she up the distribution

Ⅲ. 결 론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은 그 두 요소의 의미 총화를 넘어 일련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적 단위로서 현대 영어 어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것은 (1) 동사+불변화사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이유 (2) 동사+불변화사의 결합으로 인지할 수 있는 통사적, 의미적 준거 (3) 동사+불변화사의 결합의 하위분류 (4) 동사+불변화사의 결합 중 소위 Phrasal verb와 prepositional verb의 여러가지 차이점 등이었다.

동사+불변화사의 결합 특히 phrasal verb에 관하여는 본 논문에서 다룬 문제 이외에도 불변화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제, phrasal verb의 운율상의 문제, 불변화사의 의미적 속성에 관한 문제, phrasal verb와 기능상 유사한 형태에 관한 문제 관용성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제 문제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신빙성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phrasal verb가 특히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상 구어체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그 예문을 찾아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논문에서 다룬 문제들은 phrasal verb에 관한 보다 깊고 다루기 힘든 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의 단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목적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본 논문의 의의는 찾을 수 있다고 본다.

Bibliography

- Baugh, A.C. & T. Cable, (1968)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Prentice-Haoll, Inc., Englewood cliffs, N.J.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Mass: Harward Uni. Press.
- Fraser, B. (1974) Review of Bolinger, 1971. *Language* 50(3)
- _____ (1976) *The Verb-Particle Combination in English*. Taikushan Studies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Academic Press.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Allen & Unwin Ltd.
- Krock, A.S.(1979) Review of Fraser, 1976. *Language* 55(1).
- Lindner, S.J. (1983) *A Lexico-Semantic Analysis of English Verb Particle Constructions with OUT and UP*.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3) Longman Group Ltd.
-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Volume 1: Verbs with Prepositions & Particles. (1975) Oxford Univ. Press.
- Palmer, F.R. (1965) *A Linguistic Study of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s, Green & Co.
- Quirk, R. et al. (1973) *A Concise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Harcourt Brace Jovanouich, Inc.
- _____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Group Ltd.
- Sroka, K. (1972) *The Syntax of English Phrasal Verbs*. The Hauge: Mouton.